

# 규칙만 지켜도 극락인 것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시주물에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을뿐더러, 바라는 마음이 시주물보다 백배 천배가 많기 때문에 시주물은 비싼 거란다. 법연 스님은 정지간(淨地間)이 있어도 직접 밥을 해 드시지 않고 큰절에서 대중들과 함께 공양한다. 밥을 해먹기 시작하면 다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비축해두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것에도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한 마음씀이 번거롭다고 한다.

출가하신지 두 해가 모자라든 육십 년째이다. 백련암도 선기(禪氣)에 물들어 있는데, 암주인 법연 스님의 높고도 맑은 선기에 대해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싶다. 그래서 여쭙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는지.

“색심(色心)은 생사의 근본이기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팔지 보살 정도 올라가야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조사스님들께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색심이 완전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여. 단지 수행에 의해서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

법연 스님을 두고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며 ‘안과 밖이 같은 분’이라 한다. 안과 밖이 같기에 속내를 감추지도 드러내지도 않는다.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율력이 있을 때면 몸을 아끼지 않는다. 봉암사가 이만한 사격을 갖추는데 거의 사십년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법연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여말하게 두는 것이 참선”이라 생각하기에 좌선 대신 율력을 한다 해도 공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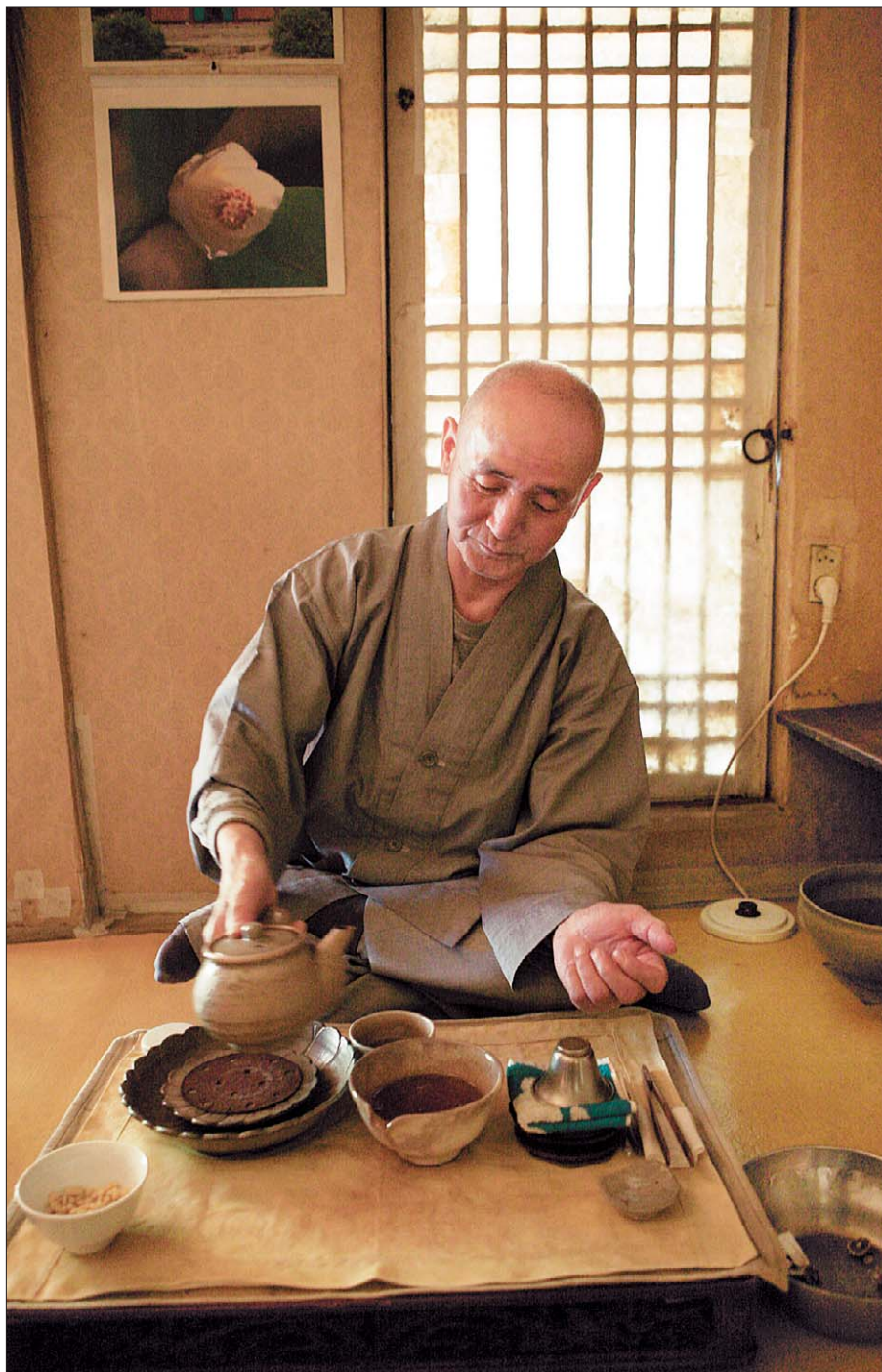
“일반사람들이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맛고 틀림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어. 조사어록은 깨달은 분상에서 말했기에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조리에 맞는 말이고, 앞뒤가 맞는 말이지. 어린이에게 어른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이, 선어록은 깨달은 사람끼리 주고받은 말이기엔 일반인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지.”

공안이 천천히 가지나 되는 것은 의심하고 해 준 말이 아니란다. 깨달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을 해주어도 듣는 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주 의심하다 보니 화두가 된 것이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쭙었더니 웃으면서 “숨쉬고 사세요”라고 한다.

“요즈음 세상을 보면 내 주장보다는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남의 말에 이끌린다는 것은 내 주관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자유인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해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일만 한다면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지.”

스님은 ‘선물’이라는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



셨다.

어느 날 의도가 와서 부처님을 비방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비방을 다 듣고 있었다. 의도의 욕심이 다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었다.

“당신은 손님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주면 받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겠지요.”

“나도 자네의 말을 하나도 받지 않겠네.”

법연 스님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해진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이 세상은 벌써 극락이 됐을 텐데, 너무 과욕을 부려서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끝에 “좋은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오히려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곧 저녁공양시간이라면서 이젠 내려가란다. 스님은 군불이라도 때려는지 램나무 몇 동치를 안고 정지간으로 들어간다. 서늘 하늘은 금빛으로 빛나고 무심도인은 군불을 지피고, 불날의 그림 같은 풍광이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43. 조계총림 방장 구산 스님

구산 스님(1909~1983·사진)은 효봉 스님(1888~1966)의 큰 상좌로, 별명이 ‘이랬고?’ 스님이다. 1956년 쌍계사에서 효봉 스님을 뵈고 나서 송광사에 돌아와 취봉 스님께 구산 스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1909년 남원 출신으로 스물 일곱 살에 우연히 병을 얻어 고생하던 중, 한 거사를 만나 자성(自性)에는 병이 없는데, 어느 곳에 병이 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법문을 듣고 감동되어 지리산 영원사에 들어가 천수기도 10만 독을 하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29세에 출가해 30세에 송광사 삼일암에서 효봉 스님께 계를 받고,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백련암에서 한 철을 나고 청남사 수도암 정각도굴에서 정진했다. 1946년 가야총림



밀, 화요일은 올바른 날 지계바라밀, 수요일은 참는 날 인욕바라밀, 목요일은 힘쓰는 날 정진바라밀, 금요일은 안정의 날 선정바라밀, 토요일은 슬기의 날 지혜바라밀, 일요일은 봉사의 날 만행(萬行)바라밀.

원래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던 육바라밀에 한 가지를 더하여 일요일에는 반드시 자비행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만행의 날’로 지키라는 당부였으니, 7일 단위의 현대생활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가르침이었다.

필자와는 세 번째 도미(渡美)했을 때 미국에서 만나 뵈었으며, 한국에 오니 법연과 보살님께서 구산 스님께 머리 깎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원래 법연화는 국제극장을 운영하다가 청담 스님 상좌들에게 맡겼는데 한 스님이 경패들에게 회생당하고, 한 스님은 환속하니 매우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청정비구가 자

### 조계종 정화운동서 열서... 불일회로 불사 시작해 국제선원 개원

에서 도감을 보고, 법당에서 한 소식을 얻고 상당법문을 하였다.

한 소리가 3천대천세계를 깨우다 삼켜버리니/ 홀로 저놈이 9시를 알리는구나/ 시계소리 부처님 말씀인데/ 편편한 금목(金木)이 부처님 몸 아니리.

이렇게 여러 번 깨달은 소식으로 서론을 대고 다음에 꽤 많은 소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강에 달이 뜨니 파도가 그대 로 달이고/ 하늘이 만물을 갈무리고 있는데 나는 하늘을 갈무리고 있네/ 일체의 이름과 모양에 원리가 구축해 있으니/ 장엄법계가 그대로 진언이로다.

스님은 1954년 정화운동에 참여해 500여 자 열서를 써 유명하였다. 그래서 1955년에는 전남 종무원장이 되고, 1957년에는 광

양 백운사를 증진하고, 1962년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를 하였다. 그러나 송광사 방장이 되더라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러나 대처 스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취봉 스님께 한 번 더 주지직을 맡아 양쪽을 화해시킨 뒤 은사 효봉 스님의 위촉을 받아 1969년 비로소 송광사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었다.

항상 웃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때문에 스님이 계신 방을 ‘미소실(微笑室)’이라 하였다. 특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여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였다. 70년대부터는 7바라밀 법문도 하여 외국어로까지 번역,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구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새로운 실천행을 제시, ‘7바라밀’을 요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하라 이르셨다. 월요일은 배푸는 날 보시바라

기 때문에 회생된 게 아닌가 생각하여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 구산 스님을 만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집 한 채까지도 구산 스님께 바쳐 송광사 포교당을 만들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불가사의한 것이다.

1969년부터 발족된 불일회가 전국 대도시마다 결성돼 송광사 삼일불사에 불을 불으니 1973년 국제선원이 개원되고, 조계총림 서울분원 법륜사가 완성됐다. 국제선원에서 공부해 마친 외국승려들이 제네바에 불승사를 세우고, 미국 카멜에 대가사를 세우니 명사 그대로 스님의 법력은 지구촌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송광사에서 목우(牧牛)의 가풍을 일으킨 구산 스님은 1983년 75세로 출가사발했던 삼일암에서 시적(示寂) 고승의 죽음을 하시니 물속에 뜬 말이 파도마다 달빛이 된 격이다.

『삭발하는 날』·『산문, 치인리 십번지』의 저자  
**현진 스님 5년만의 화제의 신간!!**  
**오늘이 전부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오늘이 전부다, 지금 숨 쉬어라.

신국판 양장 13,000원

이 책은 사랑과 수행, 인연 등 삶과 관련된 글을 모았다. 이전 책들이 절 집의 일상을 담담하면서도 재미있게 다뤘다면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도움의 메시지를 담았다. **...동아일보**

사랑하고 숨쉬고 수행하고... 삶의 절정은 오늘이다. **...한국경제신문**

스님이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는 행복 처방법은 한결같이 "사랑하라! 단, 오늘이 전부다. 서로 살 부리며 살아 있을 때 후회 없도록"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소문난 글쟁이 현진 스님은 이 글을 통해 이왕 고달픈 인생살이라면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극복하자고 독려하며 현대인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매일경제**

‘행운’에 정신이 팔려 ‘행복’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정한 일침’을 놓듯, 현진 스님이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잔잔한 이야기를 펴냈다. 유쾌한 절집생활과 스님들의 수행현장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맑은 나침반 하나를 조심스레 건네준다. **...불교신문**

스님은 행복의 길(道)을 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전부’ ‘현재’ ‘지금’이란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며 나름의 ‘행복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스님의 글은 투명하고 맑다. 각질 없이 매끈하고 솜털처럼 부드럽다. 그러나 그 속에 삶의 본령을 톡톡 치는 큼직한 죽비를 잘 갈무리 해뒀다. **...법보신문**

현진 스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두 번째 출가**  
 현진 스님의 수행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에세이

현진 스님의 수행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때로는 젊은 날의 치기와 번민들도 곳곳에 묻어 있는 이 책은 12년 전에 출판된 책의 내용을 조금 첨삭하고 멋스러움을 가미하여 발간한 개정판.

현진 지음 | 신국판 | 280쪽 | 10,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736호 T. 02)2198-5151 F. 02)2198-5153